

류현진, 13승 또 불발... 명예회복 다음에

콜로라도전 4 $\frac{1}{3}$ 이닝 6피안타 4볼넷 3실점

7-3 앞선 5회초 강판...다저스는 4연승

2013년 이후 첫 규정이닝 도달...ERA 2.45

명예회복을 노리던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이 아웃카운트 2개를 더 올리지 못하고 아쉽게 승리를 놓쳤다.

류현진은 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4 $\frac{1}{3}$ 이닝(6피안타 4볼넷 5탈삼진 3실점)을 기록했다.

다저스가 7-3으로 앞선 5회초 아웃카운트 2개만 더 채우면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출 수 있었지만 위기를 차조한 뒤 마운드를 내려가야만 했다. 류현진은 시즌 12승(5패)에 마무리며 평균자책점도 2.35에서 2.45(162이닝 44자책)로 높아

졌다. 올 시즌 한 경기 최다인 4볼넷을 허용하는 등 컨디션이 좋아보이지 않았다. 특유의 '팔색조 피칭'으로 콜로라도 타자들의 방망이를 꺾어냈지만 4회와 5회 급격히 흔들리며 아쉽게 승리를 놓쳤다.

타석에서는 9번타자로 제 몫을 톡톡히 했다. 이날 류현진은 3회초 첫 타석에서 대량득점의 발판이 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고 4회초에는 2사 후 중전안타를 치고 나가자 피더슨의 투런홈런을 이끌었다. 1타수 1안타를 기록한 류현진의 시즌 타율은 0.116에서 0.136(44타수 6안타)로 상승했다. 4경기째 승리를 따내지 못하고



있는 류현진이다. 그러나 3연패라는 나쁜 흐름은 끊어졌고, 신인이던 2013년(190이닝) 이후 6년만에 시즌 규정이닝(162이닝)을 채웠다는 의미있는 기록도 남겼다.

다저스는 류현진 강판 후 불펜의 활약으로 스코어 변동 없이 7-3

으로 이겼다. 4연승으로 92승50패를 기록,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위한 매직넘버도 4로 줄었다. 콜로라도는 9연패 늪에 빠지며 59승82패로 같은 지구 최하위에 머물렀다.

뉴스



'평균 구속 139km' KIA 문경찬 스트라이크 비율 1위 '강철 멘탈'

그 어떤 강속구보다 강하고 단단하다. 문경찬(27)이 강철 멘탈을 앞세워 KIA 마무리투수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공은 빠르지 않아도 시원시원한 공격적인 투구가 빛난다.

문경찬은 지난 3~4일 대전 한화전에서 연이틀 1점차 리드를 지키며 20~21세이브를 올렸다. 앞서 지난달 31일~1일 광주 롯데전까지 최근 4경기 연속 세이브를 수확하며 KIA의 5연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문경찬은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나가고 있어 기쁘다. 즐겁게 던지고 있다. 7~8월 더울 때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트레이닝 파트너의 도움과 선전한 날씨 덕분에 좋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경찬은 올 시즌 49경기에서 50이닝을 던지며 1승2패21세이브 평균자책점 1.44로 KIA 뒷문을 완벽하게 걸어잠그고 있다. 지난 2015년 윤석민(30세이브) 이후 팀 최다 세이브로 모처럼 특급 소방수를 찾았다.

대개 마무리투수는 150km 안팎을 던지는 강속구가 상징. 세이브 1~3위 올라있는 하재훈(SK 33개) 원종현(NC 29개) 고우석(LG 26개) 모두 우완 파이어볼러. 그들과 비교할 때 문경찬의 구속은 너무도 평범하다.

문경찬의 올 시즌 직구 평균 구속은 139km. 리그 평균(142km)을 크게 밑돈다. 하지만 직구 구사 비율이 71.9%로

압도적이다. 슬라이더(20.8%) 커터(5.1%) 포크(2.3%)도 섞어 던지지만 직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4일 한화전에도 13개 공 중에서 12개가 직구, 나머지 1개가 슬라이더였다. 마지막 타자 백창수에 4연속 직구로 삼진 잡는 게 백미였다.

최고 구속은 144km였지만 스트라이크존에 공격적으로 꽂아 넣으니 타자들이 밀렸다. 올해 문경찬은 스트라이크 비율이

49G 50이닝 1승2패21세이브

특급 마무리 투수 자리매김

직구 의존 크지만 공격적 승부

"승부사 기질 갖고 있어"

71.5%로 50이닝 이상 던진 투수 8명 중 전체 1위에 빛난다. 그만큼 공격적인 승부를 한다.

KIA 박흥식 감독대행은 "투수는 멘탈이 좋아야 한다. 문경찬은 승부사 기질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경찬은 "지난해 경험이 큰 도움됐다. 스프링캠프에서 투수 코치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게 효과를 보고 있다"며 "풀타임 첫 해인데 지난해와 또 다른 공부를 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흔들 없이 팀 승리를 지키는 게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전북 모라이스 감독 K리그 '8월의 감독'



전북현대를 이끄는 모라이스 감독이 신라스테이이가 후원하는 K리그 8월의 감독'에 선정됐다.

프로축구연맹은 5일, 8월에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19' 5경기에서 3승2무 호성적을 이끈 전북 모라이스 감독이 이달의 감독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전북은 8월 한 달 동안 K리그1에서 가장 많은 승점(11점)을 쌓았다. 특히 8월 마지막 경기인 서울과의 맞대결에서 '깜짝 스리백'을 선보이며 2-0으로 완승, 울산으로부터 1위 자리를 탈환했다.

모라이스 감독은 지난 4월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로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달의 감독'에게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제작한 트로피와 함께 신라스테이 숙박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농구 월드컵 3패' 김상식 감독

"세계의 벽에 한번 더 부딪힌 느낌"

김상식 한국 농구 남자 대표팀 감독이 농구월드컵 조별리그를 3패로 마친 소감을 전했다.

한국은 지난 4일 중국 우한의 우한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19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B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나이지리아에 66-108, 42점 차 대패를 당했다.

아르헨티나전 69-95, 러시아전 73-87 패배에 이은 3연패다. B조 최하위에 머문 한국은 순위결정전으로 밀려 25년만의 월드컵 승리에 제도전하게 됐다.

1998년 그리스 대회 5전 전패, 2014년 스페인 대회 5전 전패에 이어 월드컵 13연패에 빠져 있는 한국이다. 1994년 캐나다 대회 순위결정전 마지막 경기에서 이집트를 89-81로 꺾은 것이 한국의 월드컵 마지막 승리다.

경기 후 김상식 감독은 "아르헨티나전에서 문제점을 찾았고 러시아전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 나이지리아전 역시 러시아전처럼

몸싸움을 강조했는데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나이지리아의 힘과 탄력이 너무 좋아서 한없이 밀린 것 같다. 세계의 벽에 한번 더 부딪힌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 경기 초반 5-0으로 앞서서 등 1쿼터까지 15-17로 팽팽히 맞섰으나 2쿼터부터 밀리기 시작해 완패를 당했다. 선수들은 부상을 입으면서 열심히 뛰었으나 전력 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김상식 감독은 "김종규(허리)와 이대성(발목)은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승현 역시 발목을 두 번 빼앗겨서 시간을 두고 살펴야 한다"며 "선수들이 끝까지 잘 해줬음에도 선천적인 체격 차이가 너무 컸다. 그래서인지 부상도 나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제 한국에게는 순위결정전 2경기가 남아 있다. 중국(6일), 코트디부아르(8일)가 상대다.

김상식 감독은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예선 3경기는 모두 잊



4일 중국 우한의 우한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19 국제농구연맹(FIBA) 농구월드컵 B조 조별리그 3차전 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의 경기에서 김상식 감독이 팔에 검은 테이프를 붙이고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고 새출발이다"라며 "주눅 들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선수들을 독려했다.

뉴스

임대정원림
연돈숲정자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돈숲정자→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